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0월 13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신명기 30장 15-20절

설교제목 : “성숙의 길 5(규례와 법도)”

성숙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15절을 봅시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5절에서 ‘오늘’이란 현재적인 시점입니다. 그리고 ‘네 앞에’를 직역하면 ‘네 얼굴에’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 코 앞에 매우 현실적으로 행복과 불행의 두 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인간의 분명한 공통점은 모두가 생명과 복된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생명과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6-18절에 답을 하는데,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결정짓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시된 것이 네 가지 양상인데, 서로 짝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선 생명과 복이 짝을 이루고 사망과 화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과 사망이 대조를 이루고 복과 화가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생명’과 ‘사망’일 수 있고, 또한 ‘복’과 ‘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불안하고 존재론적으로 우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가슴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게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적 불안(unheimlich)을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anfechtungen)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하니까 우울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합니까? 그 답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품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자유와 기쁨, 평화 해방감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 갈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인간은 영원히 실존적 불안의 상태, 즉 가슴에 구멍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 봅니다. 단전호흡도 해 봅니다. 술도 마셔 봅니다. 또한 이것을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 불안의 상태를 사회적 구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존적 불안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근원적인 진정한 살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제시한 모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여부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합니다. 한편, 복과 화가 대조를 이룹니다. 15절에 복과 화란 단어가 있습니다. ‘복’으로 번역된 ‘토브’는 정관사 하가 붙어서 ‘좋은 것’ 또는 ‘선’이란 뜻입니다. ‘화’로 번역된 ‘라’ 역시 정관사 하가 붙어서 ‘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과 화란 선과 악입니다. 선악과란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선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악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과 정의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정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정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세 가지를

제시하는 첫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17절)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이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20절) 세 번째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16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덕법, 재판법, 의식법입니다. 도덕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한 법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도덕법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이 죄입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개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도덕법에 반하는 실정법을 만들려고 하면 못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법과 의식법은 각 시대마다 바뀝니다. 재판법과 의식법은 시대에 의해서 폐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복과 화 즉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다. 생명을 선택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호와를 사랑하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순간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복되고 선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국은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가를 성경적으로 답해보시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하나님의 법에서 도덕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날 낙태법 찬성이라든지 동성애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거셉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